

Policy for Ricefoods

쌀가공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 깊게 보기



올해 가공용쌀 6만 톤 추가 확보 업계 요구 '40만 톤 실수요' 반영

- ✓ 정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가공용쌀 공급량 최대 6만 톤 추가 공급 확정
- ✓ 급증하는 가공용 수요에 선제적 대응... 생산·수출 안정 기반 마련
- ✓ 지난해 5만 톤 추가공급에 이어 민·관 협력을 통한 성과

정부가 2026년 가공용쌀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수준인 40만 톤까지 확대하기로 확정하면서 쌀가공식품 산업계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결정 물량 34만 톤 대비 6만 톤이 추가 확보된 것으로 반복되던 원료 수급 불안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회원사 실수요가 40만 톤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물량 확대를 넘어 산업 안정성과 성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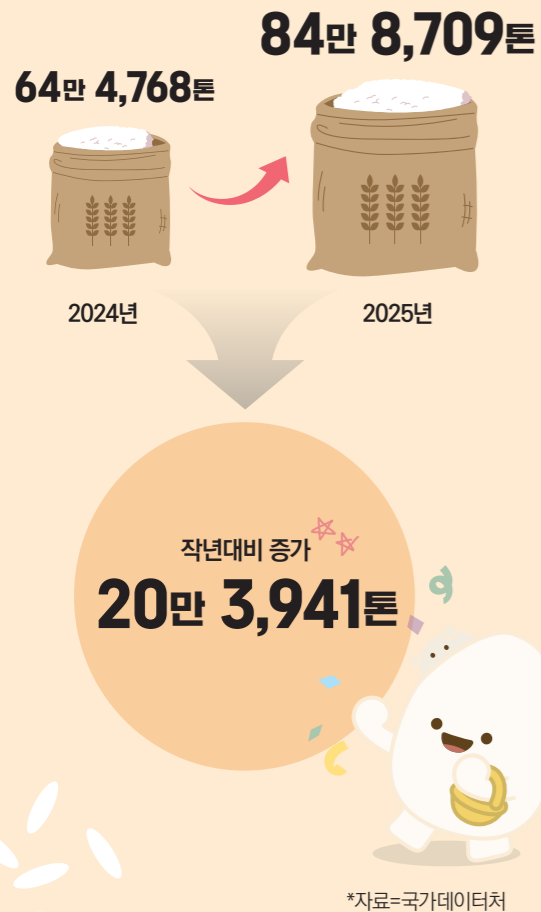
01 산업계의 지속적 설득과 협의 '성과'

이번 결정은 1월 23일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날 올해 첫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참석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쌀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당초 2026년 가공용쌀 공급량을 34만 톤으로 결정했으나 업계 수요(40만 톤)와의 격차 6만 톤이 생산 차질과 수출 대응에 직결되는 문제로 부각되면서 재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확대는 통계와 현장 상황을 근거로 한 협의의 지속적 설득과 협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해에도 원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는 5만 톤 추가 공급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특히 지난 연말부터 정부·국회에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응하며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역시 선제적 대응으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냈다.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를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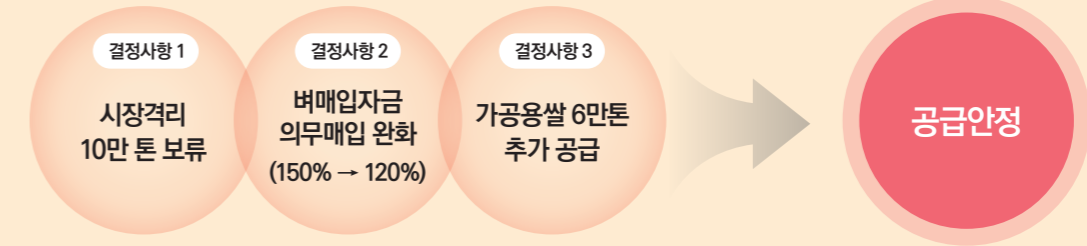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주정용 제외)



02 가공용 쌀 소비 증가세 뚜렷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가공용 쌀 소비 증가세가 있다. 국가 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전체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24년 87만3천 톤에서 2025년 106만 5천 톤으로 19만 2천 톤 증가 했다. 특히 주정용을 제외한 가공용 소비량은 64만4천 톤에서 84만8천 톤으로 20만4천 톤 늘어나 가공식품 중심의 수요 확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해석 된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초기 공급 계획은 34만 톤에 머물러 업계의 우려를 낳았다. 특히 2025년산 쌀 수급 전망이 당초 16.5만 톤 과잉에서 약 9만 톤 과잉으로 재조정되면서, 공급 여건이 변화했음에도 가공용 물량은 그대로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산지유통업체의 매입 물량 감소와 민간 재고 부족, 벼값 상승세까지 겹치며 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시장격리 10만 톤 추진을 보류하고 가공용 물량을 최대 6만 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균형을 조정했다. 이는 소비자 부담과 산업 생산성을 동시에 고려한 수급 안정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시장격리 물량을 축소·유보함으로써 시장 내 유통 물량을 유지하고 안정적 원료 공급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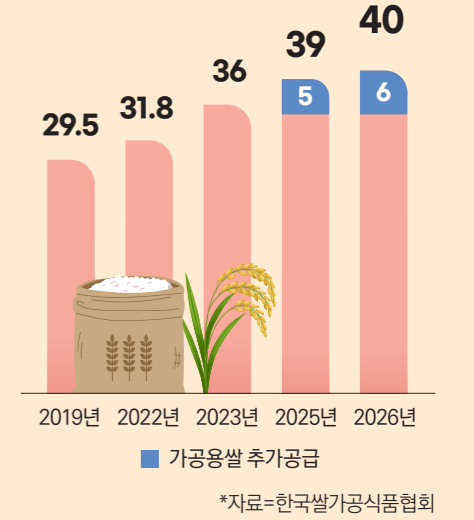
양곡수급안정위원회 1월 23일 결정사항



03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 셋

이번 40만 톤 확정은 산업계에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첫째, 생산 안정성 확보다. 회원사 수요 물량이 확보됨에 따라 신규 제품 출시와 대형 유통 거래처 확대에 대한 리스크가 완화 된다. 특히 수출 계약의 경우 원료 수급 불안은 곧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정적 공급 기반은 글로벌 시장 대응의 필수 조건이다. 둘째, 가격 급등 완충 효과다. 민간 재고 부족과 매입 경쟁 심화로 벼값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양곡 공급 확대는 원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쌀가공산업의 전략적 위상 강화다. 과거 양곡은 비축·수급 조절 수단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식품산업 성장의 기반 자원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가공용쌀 공급 추이 (단위: 만톤)



04 중장기적으로 업계 자구노력을 통한 원료조달 구조 다각화 필요

정부의 “쌀산업구조개혁” 대책에 따라 민간 신곡 소비 확대를 위해 정부양곡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수급상황 변화에 따른 내년도 정부양곡 공급량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며, 올해 4분기부터는 가공밥 업체의 정부양곡 공급이 중단되는 등의 현안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민간 신곡 소비 확대, 계약재배 추진 등을 통한 원료 조달 구조 다각화와 업계 스스로의 자구노력(신제품 개발, 판매 확대, 임의자조금 참여 등)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도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또한 가공용 전용 품종 육성, 장기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 제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가공용쌀 40만톤 공급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산업 체질을 강화하고 K-라이스푸드의 글로벌 확산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원료 기반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인가가 향후 과제로 남는다.

핵심 포인트!

2026년 가공용쌀 40만 톤 확정으로 업체 실수요 물량이 확보되어 생산·수출 리스크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정부양곡 의존을 넘어 민간 신곡 소비 확대·계약재배 등 원료 조달 다변화 전략을 병행해야 하며, 수급 안정 국면을 활용해 신규 거래처 확대와 중장기 수출 전략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할 시점입니다.

국가승인통계 2차년도 공표 쌀가공식품산업, 질적 성장 국면 진입했다

쌀가공식품산업의 현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공식 통계가 공개됐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지난 1월 30일 「2024년 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66001호) 지정 이후 두 번째 연차 결과로 산업의 연속 통계 기반을 본격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4년 기준 쌀가공식품제조업실태조사



사업체 수 감소에도 매출 증가... '경쟁력 중심 재편'

2024년 말 기준 쌀가공식품 제조업 관련 전체 사업체 수는 14,737개소로 집계됐다. 이중 쌀가공식품제조업이 4,416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10,321개소다. 전년(15,158개소) 대비 사업체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주목할 지점은 매출과 원료 사용량이다. 2024년 쌀가공식품 부문 판매액은 총 8조 3,598억원으로 전년 8조 2천억원 수준에서 증가했다. 쌀 구매량은 64만 767톤으로 64만 톤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사업체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체의 매출 규모와 원료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산업이 경쟁력 중심의 질적 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중소 제조업과 지역 기반 소상공인 생태계

규모별 분포를 보면 전체 사업체의 90.0%(13,268개사)가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소기업 7.1%, 중기업 2.2%, 중견기업 0.5%, 대기업은 0.2%의 비중을 차지했다. 쌀가공식품산업이 중소 제조업을 비롯해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 생태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반면 판매액 비중을 보면 중소대기업이 영위하는 식품제조업체가 전체 매출을 견인한다. 소상공인이 주로 분포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판매액(9,481억원)은 전체 판매액의 11.3%에 그쳤고, 중소대기업이 분포된 식품제조업체 판매액(7조 4,117억원)이 전체 판매액의 88.7%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생산품에 따른 품목별 판매액을 보면 쌀떡류(2조 3,886억원)와 가공밥류(2조 1,323억원)가 양대 축을 형성한다. 이어 주류(9,379억원), 장류(6,955억원), 기타 즉석식품류(4,916억원) 순이다. 전통 품목과 현대적 간편식 품목이 공존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사업체 특성별 쌀가공식품 부문 매출액



고용 8만6천여 명... 제조업은 '상용근로자 중심'

쌀가공식품 부문 전체 종사자는 8만 6,890명이다. 이중 식품제조업체 종사자는 6만 4,827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2만 2,063명이다. 고용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제조업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86.6%로 안정적 고용 구조를 보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자영업자(46.7%)와 무급 가족종사자(39.4%) 비중이 높다. 이는 산업 내 이중 구조를 보여주는 동시에, 정책 설계 시 제조업과 즉석 판매업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경기(948개소)가 가장 많고, 전북(466), 경북(448), 전남(438) 순으로 나타났다.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은 경기(2,096), 서울(1,377), 경남(784), 경북(717) 순이다. 수도권과 전통적 쌀 생산 지역이 동시에 산업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체계 개선하고 통계 정교화로 정책 기반 강화

이번 조사에서는 품목 분류체계를 15개에서 14개 품목으로 조정하고 업종 특성을 반영해 조사표를 간소화했다. 응답률과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국가승인 통계로서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 고도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속 통계는 산업 전략 수립의 출발점이다. 누적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산업의 방향성을 읽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2차년도 공표는 중요한 의미를 띤다. 협회는 향후 매년 동일 기준으로 통계를 축적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자세한 통계 결과는 다음 면에서 계속

핵심 포인트!

64만 톤 이상의 쌀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는 산업은 식량 정책과 농업 정책의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이다. 사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매출 증가와 쌀 소비량 유지라는 질적 성장이 나타난 지표는 쌀산업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한 눈에 보는

2024년 쌀가공식품제조업 실태조사

국내 쌀가공식품산업의 규모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2024년 쌀가공식품제조업 실태조사」는 시장 규모와 고용 현황, 생산·출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조사는 산업 정책 수립과 기업 경영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쌀가공식품 산업의 현재와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사개요

조사 목적 쌀가공식품 제조업의 시장 규모·고용·경영 현황 등을 파악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기업 경영 기초 자료 생산	조사 대상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조사 대상 쌀가공식품 제조업 관련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	주요 조사 내용 • 업체 일반 현황 • 인력·경영 현황 • 생산 및 출하 현황 • 원료 구입 현황
조사 방법 • 조사원 방문 면접 조사 • 이메일·팩스·온라인 조사 병행	법적 근거 • 통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24·25조 • 국가승인통계 (승인번호 제46600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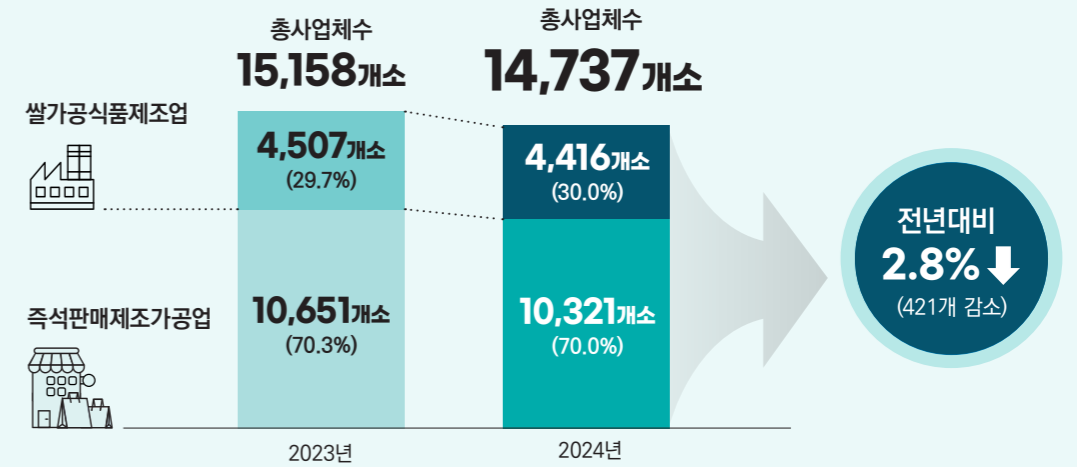
조사연혁

2011년	쌀가공산업 육성법 제정 → 통계조사 근거 마련
2019년~2023년	쌀가공식품제조업 실태조사 실시
2024년	국가승인통계 지정 및 첫 공표
2025년	2024년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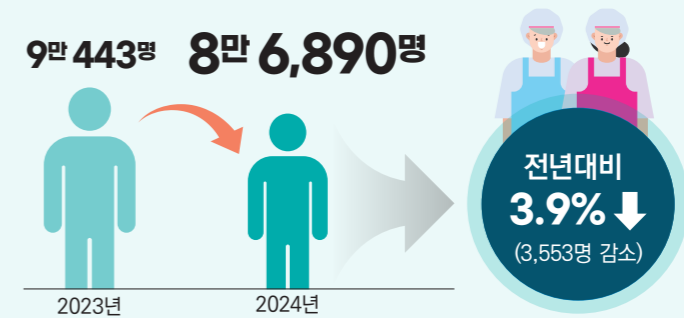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통계표 수치 추정 시 가중치 적용 및 소수점 반올림 원칙 적용
- 일부 항목은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표본 사업체 수 30개 미만 분류는 해석 시 주의 필요
- 상대표준오차 30% 초과 항목은 신뢰도 고려 필요

1 사업체수



2 종사자수(쌀가공식품 부문)



2024년 쌀가공식품제조업 사업체 수는 1만 4,737개소이며, 업종별로는 쌀가공식품제조업이 4,416개소(30%),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1만 321개소(70%)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사업체 수는 총 421개소 줄어든 가운데 쌀가공식품제조업은 91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330개소가 감소했다. 이는 근로자 감소로 이어졌다. 쌀가공식품부문 종사자 수는 8만 6,890명으로 전년대비 3,500여명 감소했다.

3 매출액(쌀가공식품 부문)



▶ 다음 면에서 계속

4 주생산 품목별 매출액(쌀가공식품 부문)

주요 매출액 증가 품목

(단위: 백만원, %)

품목	2023	2024	증가분	증감률
쌀떡류	2,317,899	2,388,627	70,728	3.05
장류	663,536	695,537	32,001	4.82
주류	916,386	937,950	21,564	2.35
기타즉석식품류	480,830	491,650	10,820	2.25
쌀과자류	167,645	172,685	5,040	3.01

앞서 사업체수, 종사자수의 감소세와는 달리 2024년 쌀가공식품부문 매출액은

8조 3,598억원으로 전년대비 1,849억원(2.3%↑)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쌀떡류(3.1%↑), 장류(4.8%↑), 주류(2.3%↑) 등의 순이다.

품목별 매출액을 보면 14개 소분류 중 쌀떡류가 2조 3,886억원으로 매출규모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가공밥류(2조 1,323억원), 주류(9,379억원), 장류(6,955억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한 품목

장류

4.8%↑

쌀떡류

3.1%↑

주류

2.4%↑



Tip 헛갈리는 품목 분류 확인하기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첨가물류를 기타 쌀가공식품에 통합해 품목 분류체계를 15개에서 14개 품목으로 조정했다.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화로, 기타 쌀가공식품에는 첨가물류를 포함한 나머지 품목분류 외 쌀을 원료로 한 업종을 뜻한다. 기타 즉석식품류에는 스프·순대·복원밥(전투식량)·핫도그·호떡 등이 해당되며, 곡물가공식품류로 분류되는 식품에는 누룽지·시리얼/선식·빙튀기 등이 있다.

5 사업체 지역 분포

쌀가공식품제조업 Top3 지역

즉석판매제조가공업 Top3 지역

지역	사업체 수	비율	지역	사업체 수	비율
경기	948개소	21.5%	경기	2,096개소	20.3%
전북	466개소	10.6%	서울	1,377개소	13.3%
경북	448개소	10.1%	경남	784개소	7.6%



사업체가 위치한 소재지별 분포에서 제조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집중된 지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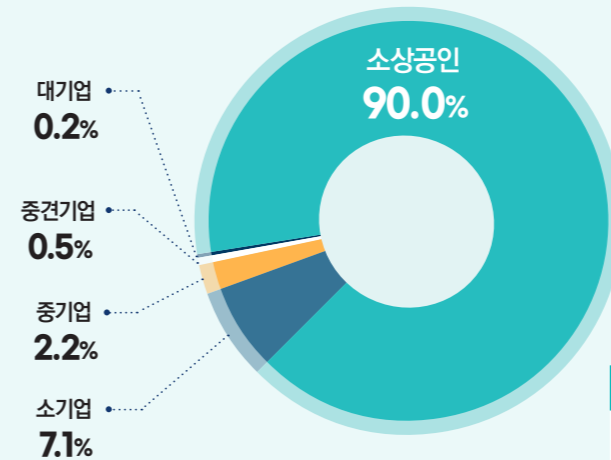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쌀가공식품제조업의 경우 경기도가 21.5%로 가장 높은 사업체

분포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북(10.6%), 경북(10.1%), 전남(9.9%), 충남(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소재지별 사업체 분포 비율은 경기도가 2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13.3%), 경남(7.6%), 경북(6.9%) 등의 순이다.

6 사업체 유형(쌀가공식품제조업)



사업체 유형을 보면 쌀가공식품제조업 중에서도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소상공인 비율이 66.7%로 가장 높고 중소기업이 31.2%로 그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비중은 2.1%로 나타났다. 주로 떡집에 해당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100%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13,268개사	1,049개사	328개사	67개사	25개사

Deep View!

- ☑ 사업체수는 감소한 반면 매출과 원료 사용량은 증가하면서 질적 성장
- ☑ 쌀떡·가공밥류를 양대 축으로 주류·장류·즉석식품류 등 전통 품목과 간편식 공존
- ☑ 90%가 소상공인·소기업 형태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쌀가공식품 시장 견인

Tip 사업체 유형 구분하는 기준은?

핵심 기준은 3년 평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제조/건설/운수업 10명 미만)인 곳이며, 소기업은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보통 10억~140억 원 이하인 기업이다. 중기업은 매출 기준을 충족(400억~1,800억원 이하)하며 자산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이다.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면서 자산 5천억 원 이상~10조 원 미만 수준이 중견기업,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이다.